

## 장애인정책에 청년 참여 확대, 정은경 장관과 토크 콘서트로 첫걸음

-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 「이음」 발대식 개최 -

- 교육·자립·문화·접근성 등 청년 장애인 삶의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

**【관련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6월 2일(화) 15시 서울 마포구 소재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이하 포럼) 발대식 및 1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장애 청년이 자신의 삶과 일상을 담은 정책 제언을 하고,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포럼에는 청년 장애인 10명(장애 유형 및 경력 고려), 언론인, 특수교사, 장애인 분야 학계 전문가, 장애 가족 등 총 16명이 참여한다.

청년 단원들의 제안과 투표를 통해 정해진 포럼의 명칭은 ‘이음’으로, 청년 장애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잇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잇는다는 의미이다.

발대식은 단원 위촉장 수여식과 포럼 활동 계획에 대한 청년 단원과 정은경 장관의 토크콘서트로 구성되었다.

정은경 장관은 포럼 단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학업권, 평생교육, 직무훈련, 지역 격차 해소 등), 자립(고용환경, 사회연대경제, 소득 보장 구조, 주거 등), 문화(관광·문화향유권, 미디어, 스포츠 및 건강권 등), 접근성

(인공지능(AI) 기술, 재난 대응 체계, 지역 격차, 정신건강 및 일상용품 등)에 대한 단원들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청년들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를 통해 장애 청년의 관심사와 고민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라며 “오늘 첫 걸음을 디딘 포럼이 장애 청년이 직접 장애인 정책을 제안·설계하고 정부는 이를 경청하여 반영하는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의 새로운 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럼은 오늘 발대식 및 활동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교육, 자립, 문화, 접근성·생활 등 주제별 분과 토론을 연내 3회 개최하고 연말에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붙임>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 발대식 및 1차 포럼 개요**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4-202-3620)
		담당자	서기관	신태환 (044-202-3625)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식개선팀	책임자	부 장	박영순 (044-202-3610)
		담당자	팀 장	박상민 (044-202-3609)



**□ 개 요**

- (일시/장소) '26.6.2(화) 15:00 ~ 16:15 / 청년문화공간 'JU'(서울 홍대입구역 소재)
  -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동교동) 1층
- (참석) 포럼 단원 12명,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등
- (내용) 위촉식 및 청년 단원 - 장관 대화의 시간(토크 콘서트)

**□ 세부 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부	15:00~15:05	(5')	개회 및 내빈소개	장애인정책국장
			추진경과 및 포럼 소개	
	15:05~15:15	(10')	위촉장 수여 및 기념 촬영	장관
	15:15~15:20	(5')	장내 정리	
2부	15:20~16:10	(50')	<b>장관과의 대화 (분과 주제 관련 토크콘서트)</b>	<b>장관 청년정책포럼 단원</b>
	16:10~16:15	(5')	마무리	-